

#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미: 이 책을 쓰는 이유와 목적

## 서 문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Why I love the apostle Paul

존 파이퍼(1946년 1월 11일-). 침례교 목사, 위튼 칼리지, 플러 신학교, 독일 뮌헨 대학에서 신학 박사, 1980년,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아폴리스 베들레헴 침례교회 33년 목회, 2013년 3월 31일 고별 설교, Desiring God Ministry, 현시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복음주의 크리스천 중 한 사람, 큰 영향력, 설교를 들으면 생동감 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사, 전립선 암 투병,

우리는 30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강해를 마쳤다. 엘버트 반즈, 위어스비 사도 바울의 생애 강해하는 시점에 이 책이 나왔다. 가장 영향력 있는 현시대 목사의 글, 30편, 사도 바울의 여러 면 소개

바울은 거짓말쟁이, 광신자(정신병 환자), 혹은 사랑받는 자인가

나는 바울과 함께 근 60년을 살았다. 존경하고 흠모하고 두려워하고 기의 말을 암기하고 강해하고 시를 쓰고 그의 고통을 보고 울었고, 로마서를 8년 동안 강해하며 그를 닮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10편을 산다 해도 그의 고통에 근접하지 못할 것이다.

### 2000년 전에 산 사람의 생애를 알 수 있을까?

그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편의 서신(혹은 14편)과 그에 대한 기록인 사도행전을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역사책이다. 이것들을 통해 바울을 알 수 있을까?

파이퍼의 말: Yes!

그를 알면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 그를 사랑하고 믿든지 사기꾼으로 여기고 미워하든지.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간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고 불쌍히 여기든지

어쨌든지 그는 실제 인물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 가지 반응,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 혹은 주님

요8:58; 10:30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인류를 속인 거짓말쟁이, 혹은 스스로 자신을 속인 자, 혹은 그의 주장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길이 없다.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 혹은 주님,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요즘은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인다. 전설이다. 즉 그분에 관한 모든 기록은 실제 그분이 한 것이 아니다. 다 전설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 사실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역사적,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어떤 역사학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바울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 학자들도 그의 서신서는 사실임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논증(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 혹은 주님)은 바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는 주님이 아니므로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 권위 있는 대변인으로 말할 수 있다(갈1:1, 11-16, 고전14:37-38, 15:1-9; 20-25 등)

사실이 아니라면 미친 사람의 말

그래서 우리는 그가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 혹은 주님의 권위 있는 대변인 나는 주님을 60년간 믿어 왔다. 가끔씩 묻는다. “왜 나는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를 믿는가?” “그리고 왜 나는 그 진리에 나의 전 생애를 세우고 있는가?” 즉 신약 교회를 한다.

이유: 진정으로 나는 그를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한 자라 할 수 없다. 나는 그의 글을 통해 그를 신뢰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룻밤 사이에, No!

그를 아는 데서 나온다. 사람을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여러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 연구하면서 혼동이 생기기도 하고 모순에 걸리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공부하면서 더 그를 사랑하게 된다.

그는 세태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2000년을 거치며 살아왔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가 아님을 알아내는 기준, 사랑을 판별하는 기준과 같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건전하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흠모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 대한 사랑을 글로 기록하게 되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게 된 여정은 하나의 여정이었다.

### 두 종류의 사랑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근본적인 이유: 내 사랑은 감사의 사랑, 흠모의 사랑

나는 그가 인생을 바치면 가르쳐 준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사랑한다.

동시에 나는 인간으로서 그가 가진 성품, 장점을 흠모한다.

그의 말들을 나를 구원으로 이끌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지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의 신비를 가장 깊게 내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고 인간들 가운데는 바울이 내게 가장 큰 인물이다. 감사의 흠모의 인물

이 글을 통해 바울이 감사해야 할 인물 흠모해야 할 인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제시하려는 것은 완전한 그의 일대기가 아니다.

이것은 나 개인이 그에 대해 느낀 바를 쓴 것이다. 즉 내가 그에 대해 느끼는 애정이다.

여러분도 바울에 대해 그를 좋아하는 이유를 기술할 수 있다. 아마 나와는 다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의 위대함을 보여 줄 뿐이다.

나는 그의 성품의 모든 것을 나열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나는 그가 믿을 만한 증인임을 보여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흠모하는 이유들을 모으면 그는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임을 확신하기 바란다.

바울은 하나님이다. 그는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고봉이다. 죄가 없는 분이시다.

바울은 나의 인성을 공유하되 특히 죄 많은 인성을 공유한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함을 성취하였다. 그것도 고통을 통해서

나는 그가 알려주는 그리스도로 인해 그를 사랑한다.

그가 열어서 보여 주는 그리스도의 위대함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그의 위대한 인품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그의 성품은 다양함을 보여 준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통해 내가 왜 그를 사랑하고 흠모하는지 보여 주려 한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기를 바란다.

나는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

총 30편의 글

1. 그의 변화(1-5)
2. 내 삶을 변화시킨 사람에 대한 사랑(6-10)
3. 논리의 사람, 사람의 사람(11-14)
4. 신비들을 노래하게 하는 사람(15-19)
5. 귀중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사랑(20-24)
6.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 사람(25-29)
7. 바울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30)

25-30분 정도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2부: 살인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인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살인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는 엄격한 바리새인(행26:5), 당시 가장 뛰어난 바리새파 학자 가말리엘(행5:34)의 문하생(22:3) 그의 증언(갈1:14)

유대교의 바리새파, 확고한 확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빌3:5-6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순교자 스테반,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음(행7:58)

다마스쿠스 도상의 변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회심한 것을 세 번이나 기술한다.

행9:1-2

바울의 생각: 그리스도교가 옳으면 자기의 믿음은 붕괴된다. 지금의 진화론자, 불신자들도 비슷하다.

그는 삶의 의미를 모세의 율법에서 나오는 의의 획득에 두었다. 행위, 선한 행위(빌3:6)

그의 동년배들, 그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함(3:7),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앞서나갔다(갈1:14).

그런데 기독교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죽음, 매장, 부활, 승천, 재림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기둥째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의 도시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기독교인들 박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것을 알게 되었다(갈1:15).

누가는 사도행전 9, 22, 26장에 이 변화의 사건을 기록한다.

행9:3-9를 보자.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행9:15-16)

그의 회심 소식이 널리 퍼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급진적인 회심을 눈으로 목격함

그의 말(갈1:13, 23-24)

회심 전과 후의 그의 삶은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살인자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 널리 알려짐

그는 분명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함

그가 박해하던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바울의 다마스쿠스 회심의 핵심: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였다.

예수님의 용서가 진짜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주님은 곧 주인

그리고 그는 사명을 받았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고전15:3-9)

딤후1:16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이유: 여기에서 나온다. 그의 회심, 이것이 사기이면 나는 끝이다. 내 믿음도 끝이다.

그런데 그의 서신서들에서 내가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 바울을 사랑하고 흠모한다.

30개의 이야기는 다 여기에서 나온다.

회심하였는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나의 주인이신가? 사명이 있는가? 신약 교회를 아는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는가?

바울을 보면서 이것을 배워야 한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33:  
바울은 합리적 설득을 넘어서는 영광의 계시를 보여 주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회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전격적인 회심, 이 회심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아무 유익이 없다. 가장 중요하다.

그는 갑자기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전하는 진리를 서신서에 쓰면서 자신의 독자들이 자기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이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거의 말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 세상의 추세: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늘어놓는다.

그런데 바울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유: 그는 자기의 이 역사적인 경험의 증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신보다 더 나은 확신을 독자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딱 두 번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인자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음을 기록한다.

1. 고전9:1; 2. 15:6-8

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가?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살아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듣기만 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대변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였다.

갈1:11-12(행22:17-21)

여기에 드러난 그의 논점의 핵심을 보자. 그는 자기의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뒤에 그는 13절을 말하면서 자기의 복음의 진리를 더욱 확증한다.

즉 그는 내 안에서 발생한 변화를 너희가 보고 있다. 사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던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는가?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역사가들이 아닌 우리는 어떠한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의 질문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복음은 아주 오래 전에 일어난 한 사람의 증언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의 깊은 역사가들은 증거들과 합리적 추론을 통해 바울의 설명이 진실하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럴듯한 가능성에 우리 자신의 삶을 걸어야만 한단 말인가?

만일 원시인 같은 사람들, 야만인들이 선교사를 통해 사도 바울의 복음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위해 죽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다(눅21:16-17). 혹시 순교해야 할 때 순교가 어리석음 일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의 메시지가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바울의 초자연적인 진리 변호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복음 자체의 내적 영광을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의 기초로 사용한다. 바로 이것이 나를 놀라게 한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보게 하는 다음의 심오한 말들을 보라.

고후4:4-6

먼저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 준다.

6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빛에 대하여 말한다.

빛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라.

첫 번째 진술(4절):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서 나온다.

두 번째 진술(6절):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데서 나온다.

이것은 분명히 해나 등잔불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다. 영적인 빛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몸의 머리에 있는 눈으로 보지 못한다.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지각의 눈, 엡1:18).

그럼에도 이 빛은 물리적 빛 이상으로 실제적인 빛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바로 이 빛은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빛이다.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 안다는 것의 소중함

이 영광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영광이다.

요1:14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영광을 보지 못하였다(마13:13).

요한과 베드로는 보았다(마16:17).

이것을 보는 것이 진짜를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야말로 진짜 증거이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기초이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영광 즉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였다.

나는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 자기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건 이상의 것을 이야기해 감사를 드린다.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적인 예수님이 없다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 매장, 부활 모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고전15:14).

그러나 역사적 증언 혹은 증거 자체만으로는 우리 혼의 내부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려면 영적인 확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

천국 지옥 간증: 고후12:1-16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 하나님의 말씀(벧후1: )

###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4:

바울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였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소명에 전적으로 충실하였다.

이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지만  
교회에도 회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회심의 열정이 오래가지 못한다. 곧장 불길이 꺼진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물론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대개는 안락과 안전을 추구하며 산다.  
그러나 살인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회심한 바울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다. 꾸준히 일을 하였다.  
그의 삶: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삶,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대의를 위해 필요한 것: 단일한 마음, 이것은 아름다움이다.

나는 단일한 마음을 사랑한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일생을 바치는 것을 보기 원한다.

한 인간이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고 삶의 목표를 하나로 정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대단하다.

물론 인생의 그 목표가 가치 있을 때만 이려하다.

바울은 자기 삶의 열정을 몇 군데서 표현한다.

행20:24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  
바울의 경우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한 길을 달리는 것이었다.

그 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바울은 달리기 이야기를 몇 차례 한다. 달려갈 길, course

딤후4:7-8

결국 그는 달리기 길의 결승점에 도달하였다.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달려가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바울은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 나이가 든 채 로마로 갔다.

그런데 거기서 삶을 마치려 하지 않고 스페인에까지 가려 하였다(롬15:20, 24).

물론 그는 거기에 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불태워 소명을 이루려 하였다.

### 그의 열정의 열정

바울의 일편단심,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대목은 빌1:20-21이다.

바울의 일편단심 목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하튼 이런 열정 속에서 그가 살든지 죽든지 한 가지 소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으로 존귀하게  
하는 것, 망원경으로 확대하는 것

빌1:20-21

바로 이것은 그의 인생의 열정, 목표를 하나로 묶어 주는 원리

인생의 모든 꿈, 계획, 전략, 운동, 메시지, 이 모든 것을 묶어 주는 열정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망원경으로 확대하는 것

빌3:12-14

이것을 고통을 통해서 이루었다,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일편단심 목표, 열정 때문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감당하였다.

거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달려갈 길을 고수하였다.

일편단심 목표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끈질긴 고통이라고 부르고 싶다.

바울의 회심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행9:16).

사실 바울이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묘사할 때 이것은 단순히 끈질긴 것만은 아니었다. 고통과 고난은 사방에서 닥쳤다.

고후11:23-28

우리가 그의 고통을 상상해 가면서 이 글을 읽으면 울지 않을 수 없다.

그에게 여러 친구가 있었겠지만 그가 느낀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밤에 다른 사람들은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 상처를 치료할 때 혼자서 자기의 상처를 매만지는 그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정상적인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말할 때 안다

물론 개중에는 그의 고통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가 이런 것을 나열한 것은 다 허풍이야!”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이것은 혹시 자랑거리를 내쫓는 미친 사람의 독백은 아닌가?”

나의 대답

바울의 사역을 꺾어내리려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후서를 수신한 고린도에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대한 신용장을 내밀었다. 이에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자기를 변명하였다.

고후11:23

이 말의 의미: 어리석은 자들만 자랑한다. 즉 그는 바보처럼 말하였다.

고후12:11

사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나는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말을 한 것을 좋아한다.

그 이유: 나는 그의 14개 서신서들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들의 칭찬이나 동정을 통해 누군가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자기 중심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정신 나간 사람과 온전한 사람의 차이: 온전한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말할 때 그는 그것을 알고 있다.

이 이유도 알고 있다. 그러면 왜 그는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위험을 무릅쓸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고후11:11).

그는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가 당한 이런 모든 고통의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이 미친 사람 바울에 의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이 단 하나의 열정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고후6:3-10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일편단심으로 헌신함